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GOOD NEWS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Hans-Jörg Ronsdorf

아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때에만,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8:36

책 소개

이 책은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말로 풀어 쓴 것, 곧 설명을 곁들여 다시 들려준 것입니다.
분량은 고전적인 성경 번역에 담긴 원래 성경 본문의 약 세 배입니다.

독일어판 제1판 2020년 4월

©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Albis 6 ½

87477 Sulzberg

hj-ronsdorf@t-online.de

www.hans-joerg-ronsdorf.de

독일어판 ISBN 978-3-9820715-3-4

표지 디자인: 토비아스 슈트릭커(Tobias Stricker)

먼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 서신의 **설명을 곁들인 풀어 옮김**입니다. 저자로서 저는 편지를 쓴 사람의 처지가 되어 그의 생각을 설명하며, 그래서 더 길게 글로 옮기려고 합니다. 제 글은 원래 본문보다 약 세 배 깁니다. 달리 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이 편지를, 또는 각 구절을 짧고 핵심 있게 설명한다면,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읽게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편지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자기 삶과의 연결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글은 바울의 원래 편지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편지는 여러분이 직접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제 글과 나란히 놓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 들어가는 말을 읽기 전에 -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 먼저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소리 내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첫인상을 얻거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 아마 바울의 첫 편지이자 가장 오래된 편지일 텐데 - 아주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복음의 가장 깊은 현을 건드리고 그것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무슬림에게도 말을 거는 편지입니다. 종교 간 대화에서 복음이 무엇이며 다른 모든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신약성경의 편지들은 대부분 계기가 있습니다. 이 편지도 그렇습니다.

잠시 사도요 선교사인 바울의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그는 동역자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아나톨리아(튀르키예)의 산지를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녹초가 된 그는 그곳 갈라디아 지방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 바울과 달리 -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관습과 풍속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자신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한 분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소식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 있는 믿음에 이릅니다. 이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드러납니다.

얼마 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 교사들(**유대주의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싶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할례**만 받으면 됩니다(말하자면 유대인이 되라는 것).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무였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복과 의무에 속하기 위해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 교사들(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바울과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간의 사회적 교류(곧 유대인과 민족들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류)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들, 곧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계명이 아니라 덧붙여진 인간의 유대주의적 계명이었는데도.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세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깨닫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펴뜨리시려고 오직 유대 민족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바울의 논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율법은 이제 그 목적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에게 율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방식으로, 곧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모든 민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정죄합니다. (1)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온전한 충분성과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모세 율법과 그 민족적 성격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유대인과 민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도덕법(예를 들어 안식일 계명을 뺀 십계명)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루기도 합니다 -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모세의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과 하나님의 영이 새 창조의 삶의 규범이 되는 삶으로 이끎니다.

유대인의 한 아침 기도는 (일부) 유대인들의 자기 인식을 보여 줍니다.

찬양받으소서,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나를 이방인으로 짓지 **않으신** 분. 찬양받으소서,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나를 종으로 짓지 **않으신** 분. 찬양받으소서,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여, 나를 여자로 짓지 **않으신** 분.

이것은 민족적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이며 성별에 따른 차별입니다. 이 편지에서 배울 수 있듯이, 바울은 이에 맞서 철저하게 나섭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격분하게 하는가?

다른 어떤 편지에서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 율법 교사들을 이토록 철저하게 반박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와 유일성이 배 밖으로 내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싶었지만, 모세와 할례도 필요하다는 말을 은근히 주입받았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더하기 모세**를 택하게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2:21).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5:2).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5:18). 이것은 성령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택하는 사람들은 모세를 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 어떤 종류의 율법을 정죄하는가?

모세의 율법, 곧 토라에 관해서는 그것이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십계명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과 비교하면 율법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독보적이고 탁월합니다. 오늘날까지, 심지어 우리 독일 기본법에서도 그 좋은 영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율법과, 그것을 행하려는 모든 노력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모르고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모세 율법의 제사 제도가 용서를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사람의 계명을 덧붙였고, 삶의 영역을 - 손 씻는 일에 이르기까지 - 할 수 있는 한 많이 경건하게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의무를 그들은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지웠습니다. 그들은 예수 당시에 율법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 -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 그러기를 바란 - 유대인 무리였습니다. 일종의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한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기까지 열심당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계명**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을 소홀히 하는 것을, 이 가장 중요한 계명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레갈리즘)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순히 규칙을 고집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1)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완전히 지나간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2) 유대주의자들이 **민족들에게 유대인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할례를 통해)도 잘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비성경적인 율법관을 공격합니다.

율법의 행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모세의 율법과 일치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행동 방식이나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인도가 일상의 삶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밀려난 율법이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또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갈라놓는 사회적 경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

켈트족(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를 2000년 뒤의 우리 시대와 문화에 1:1로 옮겨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 수 있을까요? 모세의 율법이나 십계명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에 맞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생각과 감정의 차원에서,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은혜에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옮겨 가는 내적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그들은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활동이 자기를 세워 주고 자기에게 좋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의 성과와 의무 이행이며, 그것이 겉보기의 거룩함이나 영성의 느낌을 준다는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는 관행, 태도, 요구, 지침, 신학적 견해들을 살핍니다. **복음의 중심 진술,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의 온전한 충분성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소홀히 하는 것들을.**

그것은 우리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규칙이나 구속력 있는 규정을 그저 찾아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은 실제로 영적 성장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규칙과 습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율법주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훈련은

유익하고 흔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거나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면, 저는 종교성이라는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좋은 것도 많은 경우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겉모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서. 좋은 영적 습관은 그리스도인 삶의 확고한 일부이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 어떤 교훈을 주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의 손을 꼭 붙잡는 어린아이처럼.

헌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종교적인 성과의 압박 아래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미지 않습니다. 위선은 율법주의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의 가장 힘든 시간에 철저히 실패했던 그때의 베드로처럼. 그러나 베드로는 잘못과 실패가 있었어도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파고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나 절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은혜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과 모든 약점과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와 함께 영원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성과나 결단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경험하고, 누리고, 이룹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그야말로 맹목적인 신뢰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그분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와 성령이 필요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믿음.

딸과 아들로써 하나님의 조건 없는 받아들이심 안에서 사는 것은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 안에서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좋은 열매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십니다.**

종교적,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의 예

우리 시대의 예를 드는 것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율법주의에는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농도로, 혹은 잔여물로.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삶에서.

제가 만난 가장 눈에 띄고 가장 널리 퍼진 율법주의는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로로, 사람의 중재나 성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기 위해 율법주의를 택하는 일도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땅한 대로 살기 위해. 이런 종류의 율법주의도 첫 번째 것과 똑같이 바울에게 거부당합니다. 제가 드는 예들은, 그러려고만 하면,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의 혹은 전혀 갖지 못할 때. 경건의 시간을 자주 거를 때. 원치 않게, 혹은 게을러서. 그러면 죄책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실패자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아버지와의 이 관계는 굳건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느 때나 사랑받고 100%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와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처음 몇 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힘 있는 증인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했습니다.

예: 성령 안에서 겪는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흥, 치유, 기적, 황홀경, 방언, 특별한 기도 체험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했다가 한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덜 사랑받는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은 결코 우리가 더 사랑받거나 덜 사랑받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아도 되지만, 결코 그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과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또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체험이나 깨달음(예를 들어 성령 세례, 방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의 만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시행해야 하는지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머리 모양과 옷차림의 규범, 예배 의식, 좌석 배치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구별되려면 정치와 관련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두고 그리스도인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지침 안에는 큰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두고 좁아지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율법적이고 약한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온전한 성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교제를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면, 떡을 떼는 일에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바리새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에 있고 어떤 이들은 밖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간절히 강조하는 하나됨 (3:28)을 생각하면 스캔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격을 박탈하는 판단하는 영은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태도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례를 받았으면 너는 소속되었고 모든 것이 괜찮다(율법이 그 밖에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살아 내는 경건의 전부라면,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위선으로 전락합니다.

많은 시도는 그리스도 안의 삶과 성령의 기쁨과 자유를 거스르거나 심지어 꺼버리지 않는 한 좋습니다.

오늘날 율법주의는 거의 화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작용, 곧 더 이상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고 자유가 책임 의식 없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자유는 잘못 이해되고 위협이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쪽으로 말에서 떨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결으로: 아닙니다. 흔히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감사해서 율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서 8:4가 보여 주듯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룹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서로 모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도덕법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본질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값싼 은혜”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자유는 방종의 허가증이 아닙니다. 자유는 복돋우고 요구합니다. 자유와 은혜는 의무를 지웁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며 감사함으로 스스로 놀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정해 주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속에서 스스로 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아버지께 말하는 아들의 영입니다. 아빠(Abba),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복음의 대현장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칭의와 무죄 선고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인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들은 자유 안에서 삽니다. 사랑과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을 책임 있는 자유와 섬기는 자기 헌신으로 바꾸셔서, 율법(과 사람이 덧붙인 것)의 엄격한 요구를 뛰어넘게 하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로써 모세의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유일한 약속의 담지자요 복의 전달자로서 이스라엘이 지닌 민족적 정체성은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코 둘을 결합하거나 뒤섞을 수 없습니다.

편지의 주제들과 그 대립

옛것, 지나간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새것. 가치에 따른 순서 없이 정리한 개관입니다.

그리스도	모세
하나님의 성령	율법
하나님의 성령	육체, 죄악된 인간 본성
믿음, 신뢰, 신실함	율법의 행위, 행함
약속, 하나님의 약속	율법
하나님의 복	저주, 율법을 어긴 결과
자유	종살이
장성한 아들의 신분	종살이; 감독 아래 있는 어린아이의 신분.
기업	불확실함
새 창조; 영생	할례/무할례
은혜	율법
교회의 하나됨	배타적인 유대 민족
물세례	포피를 베는 할례
칭의, 무죄 선고	정죄
복음, 기쁜 소식	율법
골고다의 십자가	악한 세대, 육체
이삭	이스마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시내산
새 언약	옛 언약
자유 있는 여자 사라	여종 하갈, 매인 자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신약성경의 모든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이끄셨을 때 우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고 이제 은혜로 무엇이 되었는지를. 그것은 참으로 하나의 온전한 “구원 목록”이며, 그것만 놓고 보아도 놀라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에 믿는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갈라디아서의 모든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위에 서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온갖 풍성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 내고 경험해야 합니다.

-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1:4).
- 이 악한 세상(또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내심을 받음 (1:4)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2:4; 5:1)
-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 (2:16-17)
- 율법에 대하여 죽음 (2:19)
- 하나님을 향하여 삶 (2:19)
-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2:19)
-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안에 사심 (2:20)
- 그리스도께 사랑받음 (2:20)
- 성령을 받음 (3:2, 5)
-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 (3:9)
-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됨 (3:13)
- 성령의 약속을 받음 (3:14)

-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생명 (3:21-22)
-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3:26)
-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3:27).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3:28; 5:6).
-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그분의 소유)입니다(3:29; 5:24).
-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속량됨 (4:5-6)
-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4:6).
-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4:6).
-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 (4:7)
-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십니다(4:19).
- 성령을 따라(성령으로) 난 자 (4:29)
-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음 (5:8, 13)
- 우리는 성령으로 행합니다(5:16, 25).
-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5:18).
- 우리는 성령으로 삽니다(5:25).
-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5:21)
- 영생 (부활 때에) (6:8)
- 믿음의 가정들 (6:10)
-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 (6:14)
-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6:15)

문안, 부름, 축복 1:1-4

여기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람. 그분의 사도. 그분은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쁜 소식, **그분의 복음**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무리가 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확증하신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은혜**의 시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저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저는 그들과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모든 교회에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보호와 돌봄과 도움과 온전함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받은 용서와 해방 1:4-5

갈라디아 사람들여,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씁니다. 우리가 본래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구속자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도록. 그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위하여, 우리의 악행과 범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음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발적이고 죄 없는 제물로. 오직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 죄의 큰 짐을 지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것을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 율법의 행위와 도덕적, 종교적 훈련으로 무엇을 해 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 그 밖에는 아무것도!**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건져 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묶고 매어 두던 우리 죄를 없애심으로써.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된 줄도 모르는 채로. 우리의 해방자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나라에서 새 출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났든 민족들에게서 났든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구원의 뜻. 그러므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영광과 존귀가 지금부터 영원히 그분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오직 하나뿐이다 1:6-10

여러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돌아섰다는 것에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처럼 뜻밖입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아주 짧은 시간에 자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분을 그냥 금송아지로 바꿔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엄청난 은혜로 부르셨는데도, 여러분은 이제 **전혀 복음이 아닌** 복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침범할 수 없는** 복음을 왜곡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든, 그때 시내산에서처럼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처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것에 아무 몫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혹하는 소식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과 어긋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곧장 멸망으로 이끕니다. **은혜에서 멀어져 율법주의로.**

복음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저는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않는 편이 나을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 예를 들어 여러분이나 이 거짓 사자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결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것을 사람에게서 배우거나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분에게서 직접 받았습니다.

저의 이야기와 돌이킴: 메시아를 박해하던 자에서 그분의 사자로 1:11-16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회중, 그분의 성도들을 극도로 박해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유대교 안에서 출세했습니다. 저는 같은 나이 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정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서나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열심당원, 조상들의 전통을 극도로 철저하게 지키는 열성분자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민수기 25장이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열심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를 멈추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곳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없애 버리려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잉태될 때부터 이미 저를 눈여겨보셨고 저를 복음의 일꾼으로 정하셨다는 것. 은혜로. 전혀 받을 자격 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제 안에 나타내심으로써 저를 멈추셨습니다. 제 마음의 눈앞에. 제 마음과 생각 속에 갑자기 그분의 아들, 메시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단번에 저의 적의와, 하나님의 회중을 괴롭히던 저의 열심을 끝내셨습니다. **저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사자. 그것도 민족들, 고임(goyim), 이방 백성들, 비유대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위한 사자.**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곧바로 하늘에서, 메시아에게서 왔다 1:17-24

이 강렬한 경험 뒤에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을 법하거나 기대했을 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 가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걸음에 대한 지시를 받는 일을.

저는 다메섹에서 지체 없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옛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두려워하며 이세벨을 피해 달아났던 엘리야처럼. 아주 멀리, 호렙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저는 - 홀로, 고요함 가운데 - 그분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제 가장 깊은 속이 정리되고, 새로 빚어지고,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미친 듯한 열심이 저를 너무 굳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이 저를 바꾸시고 고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과 은혜가 미치는 범위가 그 모든 영광스러운 세부까지 제게 계시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성경과 토라는 그분에 대해 예언하고 그분을 증언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저는 아라비아에서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뒤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여시고 제 눈뿔을 고치셨던 곳으로. 그리고 나서야, 제가 돌이킨 지 3년 뒤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저는 사도들 가운데 첫째인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15일 동안 그를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메시아에 대해 수천 가지 질문이 생겼고, 베드로는 그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열두 사도 가운데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보다 더 오래 메시아를 알았던 한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바로 그분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열두 사도 같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그 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제 옛 고향으로.**

유대에 있는 택함 받은 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저를 직접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만 들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하고 퍼뜨린다. 예전에 그가 우리까지 함께 없애며 뿌리 뽑으려 했던 그 믿음을. 그 때문에 그들은 제게 이런 돌이킴과 새 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2:1-10

14년이 지나서야 저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우리에게 신실한 조력자였던 젊은 **디도**도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는 생각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한다는 것이 위로부터 제게 계시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유대인과 민족들에게 전하도록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그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특히 유력한 사람들, 곧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방문이 헛되지 않도록.

나면서부터 그리스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도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회의를 계기로 형제들의 무리 속에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짜 형제들, 오직 한 가지만 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았는지 알아내어 그에게 할례를 강요하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건에 대한 자기들의 그릇된 생각에 따라 우리를 율법의 멍에와 짐 아래 두려 했습니다.

마침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을 때, 그들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단호히 맞서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진리, 곧 복음의 핵심에 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 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복음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인 지도자들, 곧 이른바 유력한 사람들은 제가 제 복음을 소개했을 때 제게 아무것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례를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족들, 곧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제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유대인, 곧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대에서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도 똑같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게 주어진 은혜를 보고, 제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악수로 저와 바나바에게, 민족들 가운데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저의 섬김과 사도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몰아붙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요구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지켰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던 베드로 – 식탁 교제를 깨는 것은 복음의 심장을 무너뜨린다 2:11-14

얼마 뒤 게바, 곧 사도 **베드로**가 바나바와 제가 머물던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그를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행동으로 스스로를 정죄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형제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오자, 그는 갑자기 우리가 민족들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던 식탁 교제에서 물러났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이유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식탁 교제를 거부하던, 새로 온 할례파 형제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식탁 교제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 그에게로 갔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벗이요 함께 싸우던 레위인 바나바마저 이 위선에 휩쓸려,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마치 민족들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민족들 출신의 할례받지 않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진리를.** 할례 없이, 모세의 율법 없이, 유대인의 전통 없이.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베드로와 얼굴을 맞대고 이스칸들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민족들 출신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단번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민족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여기서 민족들과 식탁 교제를 함으로써 민족들처럼 삽니다. 이제 당신이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유대인 믿음의 형제들 편에 서면, 당신은 민족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려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민족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당신의 말 없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신호가 됩니다! 잘못된 신호가.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 2:15-18

우리, 베드로와 바울과 이스라엘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며,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없는 민족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나 유대인의 생활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우리도 민족들과 똑같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 할례 같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오직 그렇게 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합니다. **복음은 분명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는, 곧 율법의 행위로는, 온 땅의 어떤 사람도 결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경건이나 바리새인의 경건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분과 우리의 연결은 오직 믿음으로만 바로잡히고 세워집니다.

우리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온 힘을 쏟는다면,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아님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할례받은 사람으로서도,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래도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선과 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저는 율법과 그 요구를 떠났습니다. 아니, 율법 체계 전체를 허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것을 다시 세운다면(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이 오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처럼), 저는 범법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법과 그분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믿음 2:19-21

유대인 바울인 저는 율법의 정당한 요구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율법이 말하자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율법은 제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히 지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율법과 그 요구와 그 정당하고 정죄하는 저주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께 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살아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곧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신 죽음이 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범법자요 죄인으로서의 저의 옛, 구속받지 못한 삶이 끝났습니다. 저를 위한 **그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마치 그것이 실제로 저 자신의 십자가 처형이요 부활이었던 것처럼 제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 그러나 옛 사울로서가 아닙니다 - 제 안에 사시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새로운 존재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새로운 존재를 정하십니다. 그분은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제 삶의 힘이십니다.

약하고 상처 입고 죽을 몸 안에서 저는 믿음으로 제 존재를 살아잡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그분만이 제 신뢰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 저는 제 삶을 겁니다. 그분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저를 이토록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저에게 유익이 되도록, 저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기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옛 언약 안에서, 그리고 율법 안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의, 우리를 구원하고 새 생명을 주는 의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분의 끔찍한 죽음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자기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받도록 돕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유대인 갈라디아 사람들(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신다 3:1-5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마치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자 예수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여러분 눈앞에 그려 보였습니다 -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그분은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셨고 우리 죄를 덮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가져다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롭게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행위와 율법에 대한 충실함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전한 것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힘과 율법에 대한 충실함으로 계속 가서 목적지에 이르려고 합니까?** 정말로 육신적인 것, 종교성의 껍모양으로 다시 떨어지고 싶습니까?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과 메시아를 아는 지식을 헛되이 경험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당한 여러분의 고난까지도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계속 간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복된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상적인 경건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까?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을 때 여러분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비유대인 갈라디아 사람들
(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신다 3:1-5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용서와
평화와 생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그것이 지금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얻어 줄 수
없고, 이 깨달음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의 아들과 딸이다 3:6-9

여러분처럼 아브라함도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는 민족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 여러분처럼. 그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율법 없이! 율법은 아직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 없이. 할례는 나중에야 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 그는 나와 바른 관계에 있다. 그가 나를 조건 없이 신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변화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데도 자손이 없어 낙심해 있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친히 네 방패요, 네 상이 매우 크리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리니 내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종이 내 상속자가 되리이다. 4 그러나 보라,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되리라.**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셀 수 있거든 못별을 세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렸고, 모든 이성과 인간의 기대를 거슬러 근원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준이요 본보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의 아들과 딸이다 3:6-9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젠가 민족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합니다.

율법은 저주를, 믿음은 무죄 선고를 가져온다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지신다 3:10-14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향하는 사람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안에 머물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계명 하나만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무도 의롭다고 선언받지 못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성경은 - 율법이 담긴 구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는데도 -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살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율법의 원리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종교적인 성과이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는 거저 받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모릅니다. 율법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의무가 있습니다! 타협도, 뒤섞임도, 중간 길도 없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깨어진 율법의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겼고, 100%는커녕 그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변호해 줄 분을 통해서만, 중보자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자유롭게 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서 주시는 의로운 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자기가 짊어지시는 분을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신명기 21:23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어 가시는 메시아, 죄 없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라는 값으로 속량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유대인과 민족들 모두에게. 할례를 받은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받아 마땅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 비할 데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향한 길을 열어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높이 들리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이 모든 백성에게 옵니다. 우리 모두, 유대인과 민족들이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엘과 스가랴가 미리 말한 대로입니다. 새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새 세상에 부는 자유의 영 - 새 창조의 숨결.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 있고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다. 율법은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 3:15-18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유언이나 언약을 맺어 그것이 법적 효력을 얻었다면, 그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덧붙인 조항 하나도 그 법적 효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에게 그것은 유효하고 다룰 수 없는 유언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약속은 많은 자손, 곧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과 가까운 혈육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 약속은 한 자손, 단 하나의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에게서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유언은 430년 뒤에 온 모세의 율법으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약속, 곧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약과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기업이 율법에서 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약입니다.

율법의 의미와 목표와 끝 3:19-24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토라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의 잘못에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분이 어떤 선을 행하려 하시는지를 보여 줍니다. 토라는 **그분의 백성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분 백성의 행실에는 규칙이 - 그리고 제재가 -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을 드러냅니다. 토라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범법을 제재합니다. 또 보려고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주어졌습니다 -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진 **그 자손**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율법, 곧 토라는 천사들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사도직과 복음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중개자 없이. 한 분 참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보증하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율법이 어떤 식으로든 약속과 경쟁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오직 이 조건에서만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있다면, 의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 오직 그렇다면 - 율법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약속을 대신할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과 민족들, 모든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에 넘겨진 범법자로 드러납니다. 죄악됨이 율법을 통해 틀림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집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아주 오래된 그 약속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가능해지기 전에, 우리는 말하자면 율법의 학교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감독과 보호 아래. 언젠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이 믿음이 드러날 그때를. 그때 믿음의 길이 마침내 율법 아래에서 갇히고 지켜지던 우리의 상태를 끝낼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율법은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여 줍니다 -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선물로 주시는 해방자가.

해방자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다 3:25-29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오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초등교사를 뒤로했습니다. 율법 아래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는 미성년자와 학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품으로. 이제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게 된 첫날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옷처럼.**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룹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서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지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의 질서와 구별,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계층적인 경계와 차별을 여러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뒤로했습니다. 세례 때 메시아를 부르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차이가 없는 하나됨. 위신, 성별, 계급, 신분, 인종, 카스트, 계층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해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약속된 기업,

해방자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신다 3:25-29

곧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새 창조의 상속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합니다. 할례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렇게 합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모든 종교의 끝 4:1-7

상속자가 미성년이고 성년이나 어른이 되지 않은 동안에는, 당시의 문화와 사회 질서에서 종이나 농노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 말하자면 대기 상태로 - 모든 재산의 상속자요 장차 주인이 될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숙하거나 성년이 될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가 올 때까지.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도 세상의 초등 원리, 곧 율법 아래 농노와 종처럼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타락한 세상에 속하는 것, 우리를 아버지와 직접 이어 주는 아들 됨의 영예와 존엄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왔습니다. 말하자면 “위에서” 정해진 때였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신 그분은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평범한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 참된 유대인. 모세의 율법 아래 나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과 그 후견 아래 있으며 죽음의 저주라는 위협 아래 살던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그분은 그들을 이끌어 내어 아들이요 상속자의 온전한 신분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처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입양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의 보호 아래 있던 미성년 자녀에서 아버지의 장성하고 자유로운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개입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모두 영원하신 분의 아들과 딸이므로, 그분은 그분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아들의 자리를, 그렇습니다, 예수 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온 존재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믿기 어려운 말이 흘러나옵니다. **아빠, 사랑하는 아버지!** 이 영,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기대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이 말로 기도하신 예수처럼.

그러므로 귀 기울이고,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누가 되었는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모세 율법의 미성년 농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께서 언제나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셨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종이 되려 합니까? 여러분은 자유를 걸고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4:8-11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상들에게 굴복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먼저 여러분을 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와 상속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하필 지금, 초라하고 약한 초등 원리와 종교적 관념으로 가득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는 영적으로 장성한 아들과 딸,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관념들과, 예수 안에서 끝난 종교적 관습들을 정말로 다시 따르려 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닌데 말입니다. 두려워하며 여러분은 삶을 유대인의 절기 달력에 맞추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성년자로 사는 것입니다. 장성하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이 모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는 복음의 소식이 아닙니다.** 약속의 상속자로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을까 몹시 두렵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4:12-2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잘 통하는 사이가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함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긴 도보 여행 끝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로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그 때문에 저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저를 혐오하여 땅에 침을 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처럼.

여러분은 그것으로 그토록 행복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놀라고 기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감격해서,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제게 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비판하고 진리를 써 보낸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다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는 이 사람들은 좋은 뜻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기들에게 매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 바울을 원수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애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제가 없을 때에도 드러납니다. 아니면 그럴 때면 다른 편으로 넘어가 버립니까? 언제나 복음의 자유 안에 있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사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녀들이여, 저는 마치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로 여러분을 두 번째 낳아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태어나시도록.**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 할레나 율법이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형상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좋은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여러분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맞대고 알맞은 말로 여러분을 다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유로 얻을 수 있다면. 편지는 때로 딱딱하고 사무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이 종교성의 종살이로 다시 떨어진 것을 보고 저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여인과 두 아들, 두 언약, 두 산, 그리고 두 예루살렘 4:21-31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율법을 듣지 못합니까? 모세는 첫째 책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한 사건을 전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에 발을 들여놓았는지 아주 잘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그의 여종에게서 얻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여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그의 아내에게서 얻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믿음 없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은 - 사람의 모든 기대나 가능성과 반대로 - 하나님의 약속과 확약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우리에게 비유적인, 예표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두 여인은 각각 공식적으로 맺어진 언약 하나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온 언약으로, 거기서는 사람이 율법의 종살이 속으로 태어납니다. 여종 **하갈**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율법 수여의 산을. 그것은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루살렘은 그 자녀들과 함께 모세 율법의 종살이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늘의 도성은 위에서 오는 모든 것의 본질입니다. 곧 그리스도, 성령, 그분의 나라, 그리고 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아내처럼 자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5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어머니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자여, 환호하며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상속자가 되도록.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끊임없이 겪습니다. 박해를 부추기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민족들을 위해서도 오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타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야 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 그들을 몰아내라.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은 예속과 자기 성과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삭은 아들 됨의 살아 있는 관계,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만든 복음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둘 중 하나: 율법 전체, 아니면 그리스도와 은혜와 자유 5:1-1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유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머무십시오. 다시 종살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맞서서 굳게 서십시오. 저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해방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들과 상속자가 되려고 할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할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할례에는 율법 전체 아래 사는 삶이 따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값싼 율법주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할례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한다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연결은 끊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구명보트에서 떨어지듯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의롭게 한 은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은혜가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의 청의,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이 눈에 보이게 될 날을 기쁨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곧 예수와의 구원하는 관계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고 오늘도 하시는 일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서로를 향한 적극적이고 사심 없는 사랑으로. 거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믿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 시작했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금 여러분을 막고 제동을 걸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런 설득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부르시는 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 교사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인상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보게 되리라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율법주의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정말로 할례를 설교한다면, 왜 저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전하는 십자가의 걸림돌과 스캔들은 더 이상 저를 박해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할례를 설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아예 스스로 거세라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신명기 23:1)에 따라 더 이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심 없는 자유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라 5:13-24

다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기심과 우상 숭배의 종살이에서도, 모세 율법의 종살이에서도! **여러분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제 마침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이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뜻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란 이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 율법의 본질이요 가장 중요한 것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한마디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례의 계명이 율법이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이의 모든 다툼 속에서,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옛 삶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고 옛, 육신적이고 자연적이며 죄악된 행실을 이기십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구속받지 못한 행실을 벗어 버리도록 돕지 못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옛, 육신적이고 죄악된 본성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 자리를 내어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싸움을 받아들이셨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육체**” 사이의, 옛 삶과 새 삶 사이의 갈등이 여러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개인 안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 사이에서도. 양쪽은 각각 여러분이 다른 쪽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죄악된 성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께 동기와 영감을 받는다면, 그분이 여러분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ABBA)와 교제하며 - 삽니다.

육체의 일

제가 “육체”와 그 욕망과 성향이라는 말로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이 참으로 이해하도록, 이제 육체의 일 몇 가지를 열거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교회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고 파괴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이기심의 일들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용납하며 너그럽게 스스로 변명하고 있지 않은지. 오히려 그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몰아내고, 끊고, 부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십시오.

먼저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낌 없이, 아무 기준 없이 행해지면, 그 파괴적인 영향은 고삐 풀린 성에 자신을 내맡기는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를 공격합니다. 생각으로든, 태도로든, 행동으로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음행: (헬라어 **porneia**) - 음란, 결혼 밖의 **모든** 성적 행위, 배우자에 대한 불성실.

더러운 것: 도착적이고 더러운 것; 결혼 안에서든 밖에서든 성적인 영역에서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 예를 들어 여자를 그저 쾌락의 대상으로 깎아내리는 것.

호색: 무절제, 방종, 그리고 성적 학대.

우상 숭배: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삶의 첫자리에서 밀어내는 모든 것.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되었던 우상 제의.

주술: (헬라어 **pharmakeia**) 마술, 마법, 오컬트, 강신술의 영역에서 의식을 바꾸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 건강을 해치고 삶을 파괴하는 온갖 결과를 안고, 삶을 견디려고,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사람들과 민족 집단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

분쟁: 불화, 말다툼, 싸우기 좋아하는 마음.

시기: 질투의 한 형태,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행동, 의심, 그리고 심한 상실의 두려움.

분냄: 폭력적인 분노의 폭발, 흔히 사소한 일로 사람과 물건을 향해 고삐 풀린 듯 공격하는 것.

다툼: 싸움과 음모를 좋아하는 악한 성향.

분열: 하나됨을 잃는 것. 그 결과: 흩어짐, 사이가 틀어짐, 반목.

당 짓는 것과 이단: 분파적인 사고, 특수한 교리나 율법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배타적이고 편협하며 스스로 닫아서는 무리를 짓는 것.

투기: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차라리 자기가 차지하려는 습관.

살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대한 가장 끔찍한 공격.

술 취함: 지나친 음주, 만취 상태.

방탕함: 술판과 먹자판, 폭식, 흥청망청하는 죄악된 생활 방식.

기타 등등.

사랑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제가 이미 말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아무 기업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의 길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곧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 맺게 하시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 자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자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택하십시오.

1. 사랑: 기꺼이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가치가 없습니다(고전 13장).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로써 모세의 율법도 이룹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무엇보다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첫째로 꼽습니다.

2. 희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의 약속을 따라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참되고 깊고 굳센 기쁨; 함께 누리기도 하며, 외적 조건(가난, 박해, 질병, 고난)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3. 화평: (히브리어 샬롬) 다툼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화해, 정다운 어울림, 결속, 온전함,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4. 오래 참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인내와 너그러움; 이웃과 형편을 참아 주려는 변함없는 마음; 수동적이지만 끈질긴 면에서의 사랑. 풀을 잡아당긴다고 풀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5. 자비: 호의적이고 늘 돕고 이해하려는 태도, 온화한 성품, 너그러움; 사랑의 적극적인 면.

6. 양선: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함, 자비와 비슷함; 다른 사람에게 옳고 좋은 것을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7. 충성: (믿음) - 신의; 믿음직함과 정직함의 덕, 언제나 자기 말씀을 지키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8. 온유: 부드러움, 이기심과 지나친 요구와 자기 과대평가의 반대; 자기 약점과 죄를 의식하며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약점에 대한 공감.

9. 절제: 자기 다스림, 자기 훈련과 자기 통제, 균형, 절도와 중용을 지키며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율법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 가운데 금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율법은 이런 성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만들어 내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열매, 이 하나의 열매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오직 그분께 맡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렀을 때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옛 삶, 곧 죄악된 정욕과 파괴적인 욕망을 지닌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옛,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했습니다. 이 옛 삶은 십자가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삶은 정죄되었고, 그로써 끝났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이 사형 판결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옛 본성(육체)에서 나와, 옛 본성을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나간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기: 서로를 위해 곁에 있고, 사랑을 살아 내고, 아낌없이 주고, 자기에게 빠지지 않기 5:25-6:10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새롭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맞게 사십시오. 성령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발자취를! 함께, 서로 하나 되어. **미래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이미 사십시오.**

서로에게서, 서로 앞에서 헛된 영광과 명예를 구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서로 자극하고 도발하는 일을 이제 그만둡시다! 서로 시기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나 **발을 헛디디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죄나 범법에 기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무엇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사는 여러분은 이웃이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그를 바로잡고 고쳐 줌으로써.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십시오. 특히 그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 그가 성령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우십시오. 그러나 온유하게, 조심스럽게, 내려다보거나 거만한 비판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도 같은 시험에 놓여 있고, 넘어지고 비틀거릴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와 잘못을 놓고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일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 짐을 집시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와 우리 죄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짐을. 교회는 아직도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의 위협을 받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곁에 서서 함께 져야 할 짐도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박해, 외로움, 두려움, 절망, 과중한 짐, 그 밖에 많은 것들.

이렇게 여러분은 율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수동성,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무위는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관심 없다”, “의미가 없다”, “가망이 없다” 등등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행군 대열에서 선택지가 아닙니다. 잘못과 죄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행하는 사랑 속에서 역사하고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흠이 없다고,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그것이 자기기만이나 자만을 막는 가장 좋은 방패입니다. 그때에야, 그래도 여전히 원한다면,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 그냥 떠넘길 수 없는 자기 몫의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 안의 삶은 언제나 공동체 안의 삶입니다!**

심음과 거둬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사람들을 후원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재정으로. 신령한 것을 받는 여러분이 물질적인 것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 안에서 깊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사와 지도자와 목자를 후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음과 거둬**라는 자연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언젠가 그대로 거둬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심은 씨앗에서 무언가가 자라 나오는 것만큼 확실하게. 자기 삶의 밭에 엿것, 구속받지 못한 것을 심는 사람은 **씩어질 것**을 거둬 것입니다. 결과 없이 할 수 없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는 방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자기 삶과 자원, 자기 인생의 시간과 힘과 돈을 자기를 위해 삶의 수많은 즐거움과 기분 전환에 쏟는 사람은,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밭에 성령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에게서 **영생**을 거둬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새 창조,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합시다 -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거둬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추수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잔치가.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헛되어 보이고 곧바로 감사의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그러므로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하나님의 마음과 열린 손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 하나 되어 있는 믿는 이들의 교회에서 시작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골고다의 십자가가 차이를 만들며,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다 6:11-18

편지를 마치며 제 손으로 직접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기까지는 글을 잘 쓰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받아 적게 했습니다. 더 큰 글씨를 보면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을 몇 마디로 요약하여 핵심을 짚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할례를 받으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은 그저 좋게 보이고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선교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일에 성공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 동족에게 박해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은 이 거짓 선교사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할례를 자랑할 수 있다는 명예를 구합니다. 마치 머리 가죽을 높이 쳐들고 승리를 축하하려는 것처럼.

그러나 저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모든 인정 욕구에 줄을 그어 지워 버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과 명예는 제 관심 밖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요, 우리가 서 있는 반석입니다. 제게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는 끝! 세상의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초등 원리와 우상 숭배적인 삶의 방식과는 끝! 한때 유대교 안에서 가졌던 제 자신의 삶의 방식과도. 거기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났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십자가의 목표요 소망입니다! 저주의 나무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이 십자가에서 이 옛, 사라져 가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니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지으신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와 안식.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과 은혜와 자유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법**만이 중요합니다.

이 **새 창조**의 기준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 아래, 그분의 평강과 긍휼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할례는 여러분을 종살이하는 옛 예루살렘과,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과 묶어 놓습니다.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여러분의 탈선으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제 몸에 박해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신 것처럼. 제 흉터는 분명한 언어로 말합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의 언어로.

우리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기를. **그 은혜 위에 서고, 그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로 사십시오.**

아멘.

맺는 말

이 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그분에게서 오지 않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직접 하신 모든 좋은 말씀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hj-ronsdorf@t-online.de

신약성경의 다른 본문들은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 그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살아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 마치 그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을 소리 내어 두 번 이어서 읽으십시오.

본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본문에 어떤 제목을 붙이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은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합니까?

다시 모이면, 여러분의 경험과 겪은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며,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과 만나고 교제하십시오.